

■ 주요 뉴스: IMF,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경고

-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연말 정책금리는 2.25~2.50% 수준에 이를 가능성
- 일본 재무상, 엔화 약세는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
- OPEC+, 3월 생산량은 목표치를 하회. 러시아산 원유 공급 감소 등이 원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기업실적 개선 기대와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이 영향

주가 상승[+1.6%],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양호한 기업실적 기대 등이 매수 증가로 연결
유로 Stoxx600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경제감 등으로 0.8%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에 따른 엔화 약세 등이 배경
유로화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1.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로 7bp 상승해 '15년 6월 이후 최고 수준

※ 원/달러 1M NDF환율(1240.0원, +3.1원) 0.2% 상승, 한국 CDS 상승

		4/19일	4/18일	전일대비			4/19일	4/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462.2	4,391.7	1.61%	국채 금리 10y	미국	2.94%	2.85%	8bp
	유럽	456.28	휴장	-0.77%		독일	0.91%	휴장	7bp
	중국	3,194.0	3,195.5	-0.05%	CDS 5y	한국	33bp	32bp	1bp
	일본	26,985	26,800	0.69%		중국	71bp	68bp	3bp
	한국	2,718.9	2,693.2	0.95%	위험 지표	EMBI+	-	376	-
환율	달러지수	100.97	100.78	0.19%		VIX	21.37	22.17	-3.61%
	유로화	1.0788	1.0782	0.06%		WTI유	102.56	108.21	-5.22%
	엔화	128.91	126.99	-1.49%	원자재	구리	471.8	480.2	-1.75%
	위안화	6.3935	6.3671	-0.41%		금	1,950.1	1,978.9	-1.46%
	원화	1,236.9	1,234.4	-0.2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IMF,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경고

- 금년과 내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각각 하향(4.4%→3.6%, 3.8%→3.6%).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충격과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 관련 봉쇄 조치로 인한 공급 차질 심화 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
- 지역별로도 미국(4.0%→3.7%, 2.6%→2.3%), 유럽(3.9%→2.8%, 2.5%→2.3%), 중국(4.8%→4.4%, 5.2%→5.1%) 등 주요국의 금년과 내년 성장률 전망이 이전의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 다만 일본의 경우 내년 전망이 상향(3.3%→2.4%, 1.8%→2.3%)
- 한편 금년 선진국과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1.8%→5.7%, 2.8%→8.7%)하고, 인플레이션이 보다 강하게 그리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관측. IMF의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인플레이션 심화 및 부채 증가라는 상황에서 견고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
- IMF의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요 중앙은행들이 향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강화에 나설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결합하여 다수의 신흥국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연말 정책금리는 2.25~2.50% 수준에 이를 가능성

- 에반스 총재는 해당 내용을 전망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정책금리 역시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연내 2회의 0.5%p 금리인상을 지지하며, 향후 정책금리는 중립금리를 상회할 수 있다고 발언
- 한편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금리상승이 미국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또한 신속하게 중립금리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데, 현 상황에서 이는 1.75%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부연

■ 미국 3월 주택착공, 전월비 증가. 재고 부족 등이 영향

- 해당 건수는 연환산 179만건으로 전월(178.8만건) 대비 증가. 이는 낮은 수준의 재고로 인한 수요 지속 등이 원인. High Frequency Economics의 Rebeela Farooqi는 건설비용 증가와 대출금리 상승이 향후 건설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

■ 미국 재무장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식량난 심화

- 엘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심각한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 및 공급 관련 충격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 이에 각국은 농산물 수출규제 완화와 농업부문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UBS와 BofA, 중국 금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 UBS는 금년 중국 성장률이 4.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전 전망치(5.0%)를 조정. BofA와 바클레이스도 모두 하향 조정(각각 4.8%→4.2%, 4.5%→4.2%). BofA는 봉쇄조치가 확대되지 않아도 관련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일본 재무상, 엔화 약세는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

-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엔화의 급격한 약세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 원자재 가격의 급등 속에서 엔화 약세는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

■ OPEC+, 3월 생산량은 목표치를 하회. 러시아산 원유 공급 감소 등이 원인

- 3월에 생산한 원유는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일일 145만배럴 하회. 특히 서방 국가들의 제재 영향으로 러시아는 목표치보다 일일 30만배럴 적게 생산.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러시아의 원유공급 감소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호주 중앙은행, 물가 및 임금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금리인상 시기 앞당길 가능성

- 4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정책위원들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진단. 또한 향후 물가상승의 신호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4/1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건설허가건수(만건): 187.3, 2월(186.5), 예상치(182.5)
- 일본 2월 산업생산(전년동월비): 0.5%, 1월(0.2%), 예상치(0.2%)

■ 주요 경제 이벤트(4/2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베이지북 공개, 중국 인민은행 금리결정, 미국 3월 기준주택판매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2년 내 경기후퇴 예상 관측 확산,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 - 블룸버그

(Recession Predictions Are Piling Up. Don't Freak Out.)

- 최근 시장 관심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수준에서, 이로 인한 경기후퇴 시점으로 전환.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 내 경기침체 가능성을 35%로 관측. 하지만 이전 경기침체기와 달리 가계의 재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
- JP 모건과 BofA의 CEO는 소비지출이 경기부양책의 수혜로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고, 가계의 초과저축으로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 골드만삭스 역시 단기간(12개월) 내 성장세에는 낙관적 입장을 견지
- 고물가와 금리인상 등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나, 충분한 소비 여력 등으로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과도할 소지

■ 엔화 약세, 일본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Financial Times

(Japan stocks: weak yen no longer boosts economy via manufacturing)

- 최근 엔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2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 그 동안 정부는 엔화 약세 관련 직접 개입을 자제. 이는 엔화 약세가 주요 제조업체의 수출 확대와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
- 그러나 지난 10년간 기업들이 환율변동 위험 회피를 위해 해외 생산기지를 증설하면서,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관련 장점이 감소. 오히려 엔화 약세 여파로 물가상승 압력 가중, 비수출 기업의 이익 감소,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 미국 달러화 강세, 정책 당국은 인플레이션 제어에 활용할 필요 - WSJ

(The Trials of Jerome Powell's Dollar)

■ 연준의 긴축정책 강화, 실질금리 상승을 촉발시켜 위험자산에 역풍 - Financial Times

(Fed tightening sends US 'real yields' to brink of positive territory)

■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급증, 증시의 고점 징후일 가능성 - WSJ

(Are Buybacks Signaling a Stock Market To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